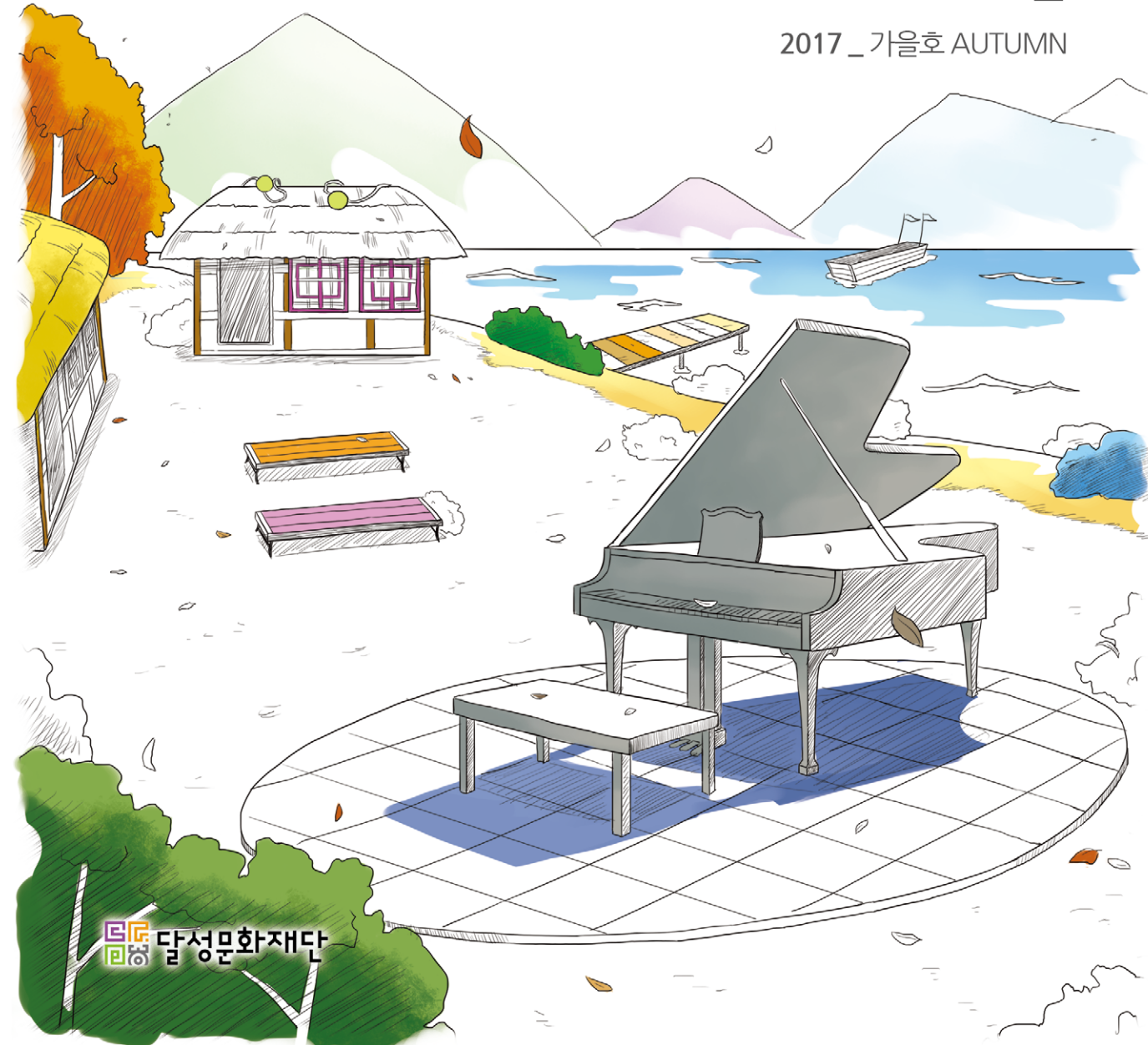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2017 _가을호 AUTUMN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 화원동산 사문진나루터 오후 7시

9월 30일(토)



유키 구라모토
피아니스트



김동규
바리톤

10월 1일(일) 100인 피아니스트 外



금난새
예술감독



정동하
가수



한·중 서원학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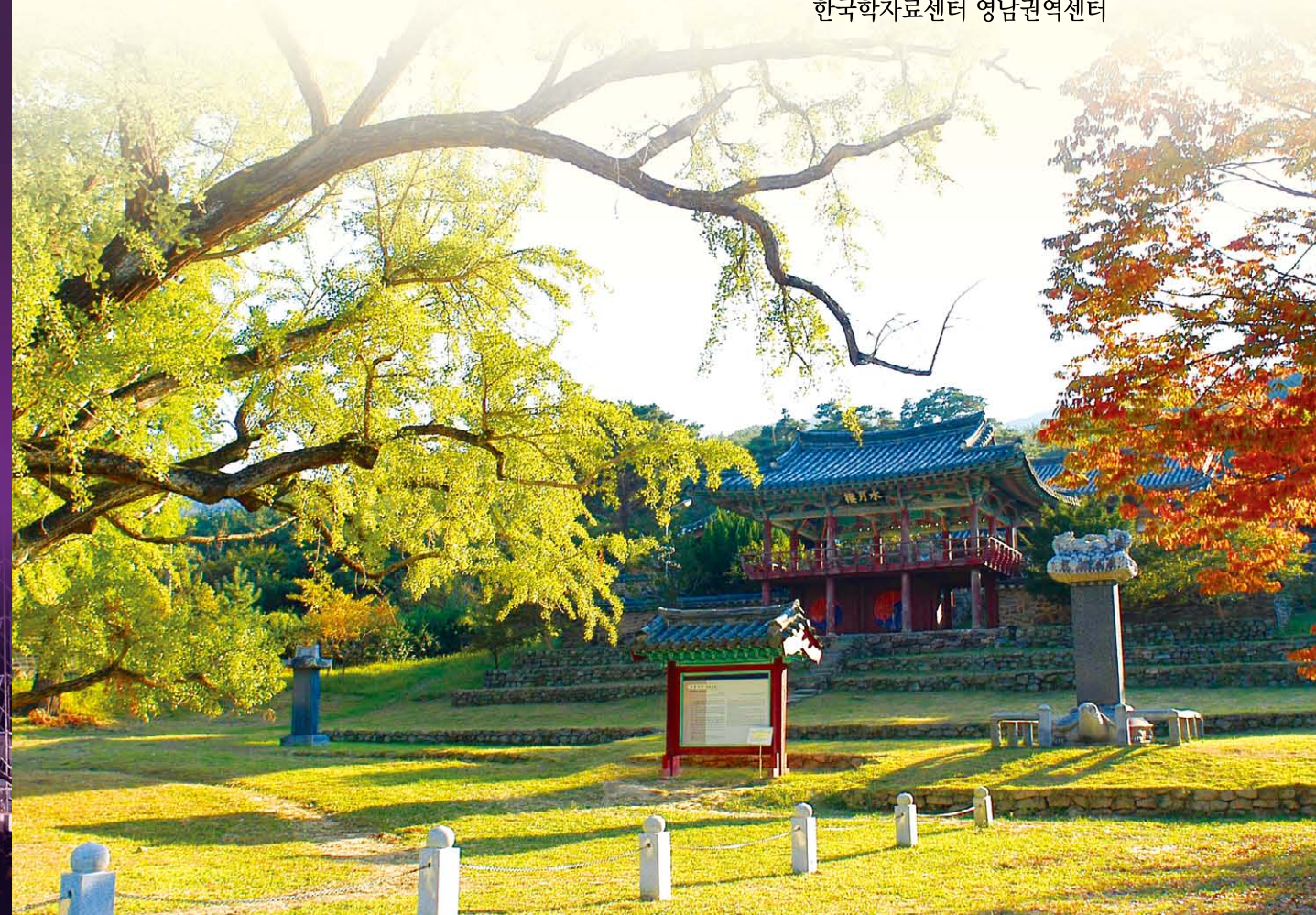
일 시 2017년 10월 28일 오전 9:30 ~ 오후 6:00

장 소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

발표자 한국학자 13명, 중국학자 10명, 독일학자 2명

주최 및 주관 | 달성군 DALSEONG GUN 달성문화재단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서원학회,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문화가득 flower
대구의 부력 달성 꽃피다

아이 ♥ 맘 콘서트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드레스 콘서트

일 시 2017. 10. 25(수) 오후 3:00

10. 26(목) 오후 2:00, 5:00

장 소 달성문화센터 5층 백년홀

아이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보세요~ ☎ 문의전화 : 053-659-4294

달성문화재단 문화책갈피

비슬산 암괴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슬산에는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된 암괴류들이 분포해 있다. 암괴류(岩塊流)란 큰 자갈 또는 바위크기의 둥글거나 각진 암석 덩어리들이 집단적으로 산 사면이나 골짜기에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을 말하는데, 비슬산 암괴류는 중생대 백악기 화강암의 거석들로 이루어진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길이 2km, 폭 80m, 두께 5m에 달하고 암괴들의 직경이 약 1~2m에 이르는 것으로 국내에 분포하는 수 개의 암괴류 중 규모가 가장 커 학술적·자연 학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참조 : 문화재청

문화예술의 꽃봉오리 - 달성

‘꽃봉오리’의 뜻에는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아니한 꽃이라는 뜻도 있지만 희망에 가득 차고 장래가 기대된다는 비유로 쓰여지기도 한다. 이렇듯 달성에서는 현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 중이다. ‘강정대구현대미술제’, 사문진 나루터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100대 피아노’ 등 언제 어디서나 화려하고 탄성을 자아내는 문화예술의 크나큰 꽃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대 아트빅쇼라 불리는 이들 대표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달성의 사계를 채워가고 있다. 봄의 향기를 전하는 ‘비슬산 참꽃문화제’,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주는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가을의 추억을 만드는 ‘달성 100대 피아노’ 겨울의 낭만을 더하는 ‘성악창작페스티벌’로 시·군민들의 문화향유 지수를 충족시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달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 총서 발간, 달성의 문화소식을 전하는 계간지 ‘꽃밭에서’ 발간, 달성에서 펼쳐지는 대구 최초 국제아동국악제인 아이조아페스티벌, 달성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달성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00대 피아노’의 시작을 알리는 ‘100대 피아노 마중콘서트’ 개최를 통해 ‘100대 피아노’ 홍보와 더불어 달성군 구석구석에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출범 6주년을 맞는 달성문화재단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도동서원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선정되어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드레스콘서트>, 민간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뮤지컬 <별의 여인 선덕>,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프로그램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등 총 3개 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올해만 해도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 중 7개 사업에 지원하여 약 3억1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달성군을 비롯한 대구시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 있다. 게다가 달성군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인 ‘달성 100대 피아노’가 대구시 지자체 사업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달성군이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에 참여해 가을처럼 풍요로운 충만함을 만끽하길 바란다. 달성의 미래와 희망을 담은 작은 꽃봉오리가 시·군민들 마음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다.

문화정책실 장인규



CONTENTS

2017 AUTUMN Vol. 06

09 Column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_ 최승훈 대구미술관관장

10 특집

달성 시대를 환하게 비추는 사문진의 아트빅쇼,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_ 김상욱

14 피플 I

귀에 익은 멜로디, 양상불의 장식
_ 유키 구라모토

16 피플 II

사문진에 다가올 가장 ‘행복’한 순간
_ 금난새

18 문화공감

피아노의 도시 달성을 위한 마중물 「마중콘서트」
_ 최엄윤



20 미리보기 I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_ 장인규

24 미리보기 II

한·중 서원학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



최승훈 대구미술관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계절과 계절 사이엔 묘한 매력이 있다. 떠나보내야 하는 계절의 아쉬움에는 추억이 담겨있고, 맞이하는 계절에는 설렘이 담겨있기 때문일까? 사이의 시간에는 감정들이 유독 더 풍요롭게 소용돌이친다. 이맘때면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지나간 시간, 잊어야 했던 인연, 장소 등을 떠올리며 기억을 되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대구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홍빛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핀 달성의 고택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순간 첫사랑을 다시 만난 듯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택이 품고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과 음악, 노을, 바람향기들이 공감각적으로 어울리며 오래지 않은 과거로 나를 인도하더니...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기억들을 소환하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여러 나라, 많은 장소를 접했지만 그 짧은 순간 봉인된 기억을 풀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곳은 그 고택이 처음이었다.

그 매력을 좀 더 느끼고 싶어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달성은 오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달성문화재단이 있었다. 1900년 3월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도착한 선교사 사이드보담 부부의 피아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획한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 1974년~79년까지 낙동강변 강정에서 펼쳐진 대구현대미술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2년 10월 재개한 강정대구현대미술제, 현대적인 기능을 더한 도동서원의 활용사업 등 잃어버린 기능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달성문화재단의 의식 있는 사업에 감명 받았다.

숨어있는 지역의 역사를 발굴해 스토리텔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문화마인드를 가진 달성문화재단이 올해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국제적인 행사로 도약시킨다고 한다. 이를 마중물로 많은 문화기관, 문화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놓치고 있었던 지역 이야기,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재해석을 전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가을바람을 타고 사문진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28 미리보기 Ⅲ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_ 경북대학교 사학과 김명진 박사

32 리뷰 I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리뷰 '강정, 미래의 기록'
_ 이나영

36 리뷰 Ⅱ

온 가족이 함께, 아이조아 페스티벌 _ 곽원영

38 서원

홍의장군 객재우의 용맹 깃든 예연서원 _ 이현경

42 달성의 농악

달성다사12차진군 / 달성이천농악 _ 박종복

46 달성의 조형물

전쟁과 평화 : 우룩마을 이야기 _ 박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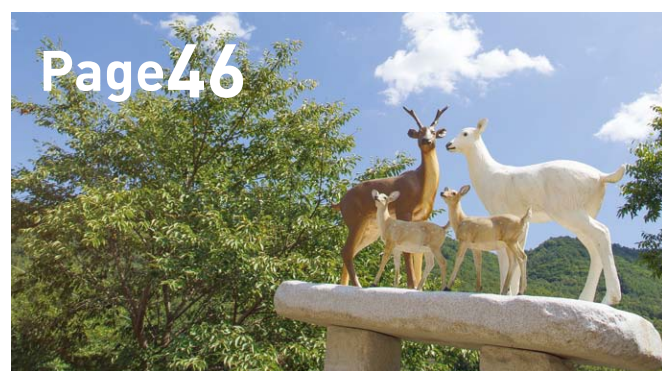
48 달성인사이드

사람을 사람답게, 성현의 정신을 오래오래
현풍향교 _ 이준석

발행인 | 김문오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김채한
기획/편집 | 김성수, 최영윤, 곽원영, 김상욱, 박현주, 이나영, 장인규, 이시영
발행월 | 2017년 9월
발행처 | 달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전화 | 053)715-1273
팩스 | 053)715-1289
홈페이지 | www.dsar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ISSN 2508-3740
2017년 VOL.6 비매물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성 시대를 환하게 비추는 사문진의 아트빅쇼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 전체 면적 49%를 차지하는 달성군은 대구의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빠른 성장 중에 있다.
달성의 대표 문화콘텐츠는 뜨거운 여름 강정보 디아크 일대에서 열리는 「강정대구현대미술제」와
가을 밤 화원동산 사문진 나루터에서 열리는 「달성 100대 피아노」다.
달성의 2대 아트빅쇼라 불리는 두 행사는 낙동강을 따라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반을 둔 문화이벤트로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르고 있다.



국제축제로 도약하는 「달성 100대 피아노」



1900년 3월 2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을 성산리(사문진)에 도착한 선교사 사이드보담 부부의 피아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과 부산을 거쳐 낙동강 짐배에 실려 들어오게 된 한국 최초의 피아노다. 역사 속 이 작은 이야기는 오늘 「달성 100대 피아노」라는 문화콘텐츠로 부활했고 다시 사문진으로부터 출발하여 전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양일간의 「공연」에서 벗어나 「국제축제」로의 확장을 표방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연이은 선정과 대구광역시의 국·시비 지원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이탈리아 PIANO CITY MILANO 축제와의 MOU를 체결하였다.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올 봄 「2017 PIANO CITY MILANO 축제」에 지난 5년간 100인 피아니스트 공연의 연출을 맡아온 풍류아티스트 임동창이 초청받아 허튼가락 연주로 색다른 선율과 리듬의 한국정서를 전하며 이탈리아 관객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한편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PIANO CITY MILANO에서 피아니스트가 올 가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대구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달성의 대표문화 콘텐츠 「달성 100대 피아노」는 다른 어느 공연에서도 만날 수 없는 웅장한 감동을 전하며 전국에서 5만여 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찾는 달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최정상 출연진, 깊이 있는 예술성

2017년 9월 30일(토)과 10월 1일(일) 양일간 진행되는 축제의 첫째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예술성을 담았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뉴에이지 음악, 국민 바리톤 김동규의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대구의 오페라 디바 소프라노 마혜선의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 국내 최고 트럼페터 안희찬의 화려한 선율, 남성 4인조 피아니스트 그룹 양상블 클라비어의 피아노 배틀



김동규



안희찬(트럼페터)



양상블 클라비어



정동하

등 최정상 출연진이 들려 줄 레퍼토리는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를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사문진 강바람을 따라 깊이와 감동을 더할 것이다. 「달성 100대 피아노」의 화룡점정이라 부를 수 있는 100인 피아니스트 공연은 10월 1일 저녁이다. 축제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올하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금난새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100대의 피아노가 한 무대에 올라 한계와 편견을 깨고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100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문화계의 블록버스터라 불릴 만큼 웅장한 스케일과 하모니의 감동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공연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클래식 장르로 수많은 대중을 사로잡은 금난새 예술감독의 지휘와 뉴월드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블록버스터 100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편 이날은 록밴드 부활 보컬 출신이자 KBS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으로 가창력의 정점을 찍고 2017 제11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가수 정동하의 무대도 함께 해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100인의 피아니스트

100대의 피아노와 100명의 연주자를 한 무대에 올리는 공연은 관객에게도 감동이지만 연주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래서 「달성 100대 피아노」의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품격의 집단 퍼포먼스에 참여하고자 전국의 피아니스트들이 달성을 찾아오고 있다.

달성문화재단은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100인 피아니스트' 오디션을 진행했다. 7월 21일부터 8월 21일 한 달간의 접수 기간 동안 서울·경기,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예년보다 많은 응시자들이 지원함으로써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인의 피아니스트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피아노 및 작곡전공자들과 대구·경북예고 학생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달성 100대 피아노」가 진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100인의 피아니스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전국에서 각자의 목적과 꿈,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이 서로 만나 함께 조화를 이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축제가 아닐까?

한편 100인의 피아니스트 모두가 만나는 첫 만남인 오리엔테이션 및 연습은 9월 17일 오후 3시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진행되고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연습으로 웅장함과 화려함을 넘어 100대 피아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차별화 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조화를 이뤄간다. 마침내 10월 1일(일) 오후 7시, 100대의 피아노, 100인의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오르고 100여 개의 마이크에 피아노 소리가 담기면 탄탄한 실력을 갖춘 100인 피아니스트의 장엄한 무대 위로 조명이 비출 것이다.

상시공연장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무대는 화원동산 사문진에 마련된 상시공연장이 될 것이다. 2016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달성 100대 피아노를 진행했었다. 특히 전국에서 도착한 100대 피아노가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옷지 못 할 헤프닝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 해 9월 달성군에서는 우천 시에도 공연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설이 마련된 야외 공연장을 화원읍 사문진 일원에 개장한다. 폭 32.6m, 깊이 23.3m, 높이 20m의 국내 최대 크기의 막 구조물로 무대는 높이 80cm의 목재테크이며, 조명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상하 이동식 조명걸이대 13개가 설치돼 있어 무대 전역을 비출 수 있다.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의 무대로 첫 선을 보일 상시공연장은 달성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다.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는 관객들이 물리적,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올가을 사문진 강바람 따라 울려 퍼질 웅장한 하모니에 동참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자.

문화정책실 김상욱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 <2017 달성 페스티벌 - 100대 피아노>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니 엄청나게 놀랍도록 멋진 기획이네요. 음악, 특히 피아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애정으로 이 공연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저의 출연 파트는 <1대>의 피아노와 함께 플루트 / 클라리넷 / 바이올린 / 첼로의 네 명의 젊고 훌륭한 연주자분들도 협연해 주십니다.

2.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시작하신 결정적인 계기와 피아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혹은 철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듣고 외운 동요나 가요곡 등을 오르간으로 치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는, 진짜 피아노로 레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색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친해지기 쉬운 피아노 소품을 계속해서 창작해오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음악의 문법을 지키면서 화성이나 멜로디를 특히 중시하고, 전체적으로는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감정의 기복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17 달성 페스티벌 - 100대 피아노>의 관객들께 전하고 싶은 연주곡과 그 곡들에 담긴 선생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의 많은 곡들을 친근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Lake Louise나 Romance 같은 서정적인 악곡, 그리고 Waltz Romantic이나 Romance For Piano와 같이 클래식 피아노 음악의 대가 쇼팽이나 슈만의 기교를 빌린 소품도 선보이고 싶네요. 또한, 콰르텟 연주자와의 앙상블에서는 경쾌한 곡도 구성해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즐기실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보았습니다.

4. 앞으로의 음악 작업 계획과 음반, 공연 등 한국에서의 일정을 알려 주세요.

다음 음반 제작을 위한 녹음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발매일은 자세하게는 미정이지만, 좋은 연주, 악곡, 음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보집으로는 작년 말에 발표한 <Nature>, <Love & Emotion>에 이어 또 한 권을 제작 중으로, 원고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몇몇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출연하여, 자작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리고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고금의 명곡 등도 피아노 솔로로 연주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귀에 익은 멜로디, 앙상블의 장식 이토록 아름다운 유키 구라모토의 선율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유키 구라모토가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를 찾는다.

화원동산 사무진 나루터의 무대에서 따뜻한 연주로 관객의 감성을 두드릴 유키 구라모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들려줄 음악세계를 미리 만나 보았다.



(C)Sangwook Lee

금난새의 향기를 머금은, 사문진에 다가올 가장 ‘행복’한 순간

지난 8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2017 달성 100대 피아노>를 빛낼 ‘100인의 피아니스트’ 오디션이 있었고 예술감독 금난새 지휘자가 도전자들을 만나기 위해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을 찾았다.



1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예술 감독이 되신 소감은...

우선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에서 <강정대구현대미술제>와 <달성 100대 피아노> 같은 예술 사업을 한다는 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 공원이 우리 삶에 있으면 더 풍요로운 것처럼 클래식 음악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성 100대 피아노>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피아노 건반악기를 통해 새로운 청중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00명을 찾는 오디션을 진행 중인데 물론 괜찮은 연주자도 있고,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피아노가 외로운 악기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긴 하지만 혼자만이 주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잘 도와줘서 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통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100인의 피아니스트 심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100명, 즉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너무 차이가 나면 서로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원만한, 대다수의 평균적인 능력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기 정말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꿈을 가지고 싶은,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럴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통의 심사와는 다른, 그래서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고, 신청 이유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3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의 방향성, 또는 연출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도 물론 좋았겠고 좋은 점이 많았겠지만 제가 하면서는 이전과 다르면서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향기, 금난새의 향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는 아니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의 행복감, 즉 내가 지휘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좋았겠지만 새로운 행복감을 청중들에게 주고 싶어요.

4 감독님께서 올해 지휘인생 4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클래식 대중화의 선구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수많은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요?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저는 예술이 한정된 사람들, 한정된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전기도 발명하고 차도 만들고 함으로써 사람들의 편리를 고민하고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하는 클래식 음악이 제한된 청중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생활 속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타이틀 보다 ‘가장 사랑을 받는 지휘자’라는 타이틀에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예술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예술, 행복을 나누는 음악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연주자와 함께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음악을 좋아하는 연주자들과 같이 100대 피아노 축제를 만들 것으로 청중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5 앞으로 달성 100대 피아노가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이 있다면...

달성군은 지난 5년간 해 왔지만 저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청중을 만나고 여러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난 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위한 보강점과 방향성을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계속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리 문화정책실 김상욱

피아노의 도시 달성을 위한 마중물

「마중콘서트」

맞이하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마중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마중콘서트는 지역의 피아니스트 및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특색 있는 공연으로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전하며 달성 지역 곳곳에 「2017 달성 100대 피아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 7월 15일 토요일 저녁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개막을 기념하며 마중콘서트 1회가 '강정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강정보 디아크광장에서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진행됐고, 2회는 '토이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8월 19일 토요일 낮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대구 최초 국제 아동극 축제인 「아이조아 페스티벌」의 연계행사로 진행됐다. 그리고 9월 9일 토요일 다사교회에서 '음악의 사랑과 나눔', 9월 16일 토요일 화장사에서 '사문진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개최되어 총 4회의 마중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청중들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간 마중콘서트가 관객들을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로 안내하길 바란다.



끌어올리다

즐겁고 싶고, 좋은 것을 마주하고 싶고 또한 행복감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어쩌면 문화예술에의 욕구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펄프 위에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펄프질을 하다 보면 지하를 흐르고 있던 물이 어느새 팔팔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한 문화예술에의 참여욕구, 표현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이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양일간의 콘서트를 넘어 「피아노의 도시 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중콘서트는 「달성 100대 피아노」를 홍보하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소개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일상에서 만난 작지만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경험은 지역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넘쳐흐르다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는 피아노시티 축제를 펼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관광지를 가면 거리 한가운데, 공항의 한 귀퉁이에, 공원의 어느 나무 그늘 아래 한 대의 피아노가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는 팻말과 함께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서툰 두드림이든 전문 피아니스트도 놀랄만한 솜씨든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작은 무대. 한 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여유와 즐거움, 그리고 추억으로의 회귀는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피아노시티, 즉 '피아노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대한민국에서 달성만한 곳이 또 있을까? 100여 년 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온 한국 최초의 피아노라는 역사성과 장소성,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달성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부활한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 지역의 다양한 장소로 찾아가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마중콘서트까지.

피아노의 선율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달성의 모습을 그려본다. 일상으로 스며들기 위해 예술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마중콘서트, 그 다정한 발자국이 '피아노의 도시 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문화정책실 최엄윤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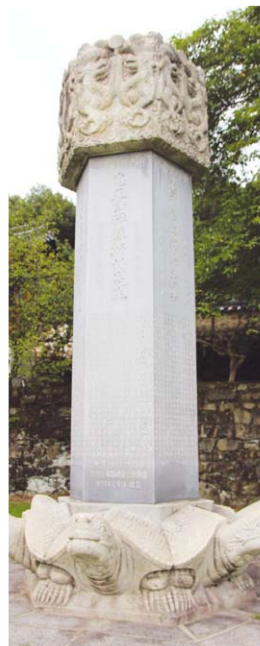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충심과 희생, 꿈의 상징인

육신사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이 밝혀진다



박팽년 영정



사육신의 행적을 기록한 육각기념비

달성문화재단이 제작하는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이 오는 11월 24(금)~25(토)일 달성문화센터 백년홀에서 오후 3시, 7시 30분,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시행하는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중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하여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미 달성문화재단에서는 2013년, 100여 년 전 사문진나루터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왔다는 스토리에 착안하여 창작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를 기획·제작해 성황리에 공연한 바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가진 달성군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감성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달성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7년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은 달성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육신사를 배경으로 하며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육신과 육신사의 이야기를 흡입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익숙한 장르인 뮤지컬로 기획·제작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 충심과 희생, 꿈의 상징인 육신사에 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는 가을 달성문화재단에서 그 비밀을 쫓아가 보자.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육신사 이야기

육신사는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긴 어린 왕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가 숨진 사육신, 즉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와 박팽년의 부친인 박종림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현재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해 있다.

세조는 사육신의 직계 존비속 남자 삼족을 모두 죽였고 여자는 노비로 전락시켜 멸문을 시켰다. 그런데 사육신 중 한명인 박팽년은 어떻게 후손을 계승할 수 있었을까?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박팽년이 죽음을 당할 때 둘째며느리(박순의 처) 이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대구의 관노로 내려와 관청의 노비로 지냈다. 세조는 며느리 이씨가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하였다. 같은 시기 박팽년의 여종도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요, 나와 똑같은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자식으로 대신 죽게 하리라' 하였는데 해산을 하니 주인은 아들을 낳고 종은 딸을 낳았다. 바꾸어 자기 자식을 삼고 이름을 박비(朴婢)라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게 사육신의 직계 남자 자손 중 박팽년의 자손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살아남았고 그 후손들이 박팽년만을 모셔 제사를 지내다가 선생의 현손(玄孫, 손자의 손자)인 박계창이 선생의 기일에 여섯 어른이 사당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꿈을 꾸 후 하빈사(河濱祀)를 짓고 사육신 모두를 모셨다. 그 이후 하빈사는 1691년 낙빈서원이 되었다가 1975년 지금의 육신사 면모를 갖추었다.

판타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육신의 이야기,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

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박팽년 후손들이 사는 묘골을 지키는 산신을 등장시켜 신계와 인간계가 만나는 판타지적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세조에게 멸문지화를 당하여 후손이 없어 천도도 하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떠도는 사육신은 박팽년의 후손이 살아남아 위패를 모신다는 소식에 축하를 하러 모인다. 하지만 자신들의 위패가 없으니 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이는데 그 모습을 본 박팽년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다. 모두들 난감해 하고 있을 때 묘골의 산신이 나서서 함께 있도록 도와준다. 박씨의 후손 계창의 꿈에 사육신이 나타나고 계창은 서둘러 사육신 모두의 위패를 함께 모신다.

한편, 육신사에 날마다 나타나는 여인이 있었으니 오라버니의 과거 급제를 기도드리러 온 여린이라는 남자로 기울어진 양반의 자손이다. 육신사에서 집대성 박팽년과 사육신의 위패를 모두 모시니 집현전의 학자들과 장군이었던 그 분들에게 기도하면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에서였다.

사육신은 날마다 자신들에게 기도하러 오는 여린을 보고 오라버니를 생각하는 가혹한 마음에 감동하고 있었는데 산신에게서 그 여인이 박팽년의 후손을 보존토록 했던 여종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들과 같이 주인에 대한 ‘충’을 실천했던 여린을 적극 도와주기로 마음먹는데...!

사육신과 육신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해 무겁지 않은 재미를 주어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가족 뮤지컬 형태로 재탄생 한 창작뮤지컬 ‘육신사의 비밀’은 전국에서 30여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의 김하나 작가가 작품을 썼다. 그리고 ‘남자들의 수다’, ‘책, 갈피’, ‘춤추는 수사본부’, ‘잔니스키키’ 외 다수의 공연을 연출 한 대구의 ‘수 오페라&드라마’ 총 감독 김은환이 연출을 맡고 작곡에는 ‘사랑꽃’ 외 다수의 히트 뮤지컬을 작곡한 지역 대표 뮤지컬 작곡가 윤정인이 맡았다.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 최민준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작품에 참여할 예정이니 온 가족이 함께 뮤지컬을 통해 흥미로운 역사여행을 떠나길 권해드린다. 공연 관람 후 육신사를 꼭 방문하여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화정책실 장인규



한·중 서원학회 교류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

자료제공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달성군은 지리적으로 조선시대 영남 좌우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두 지역의 퇴계학 내지 남명학의 영향을 고루 받은 곳으로 도동서원(김광필)을 중심으로 예연서원(곽재우, 곽준), 이양서원(곽안방, 곽지운, 곽규), 송담서원(박성), 녹동서원(김충선), 이강서원(서사원), 낙빈서원(박팽년), 용호서원(도성유, 도여유, 도신수), 인흥서원(추적), 한천서원(전이갑, 전의갑) 등 다양한 서원이 남아있다. 서원은 전통시대 지성사의 거점이며, 향촌 자치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서원의 가치는 제고되어야 하며 서원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사회사적 가치를 더욱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달성군은 오는 10월 한·중 서원학회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정주제(기획주제)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및 자유주제로 나눠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독일의 서원 관계자 및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서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서원 문화의 탐구 및 현재적 계승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주 제 : 한·중 서원 연구의 현재와 미래

기 간 : 2017년 10월 28일~29일

장 소 :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

주 최 : 달성군·달성문화재단

주 관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서원학회,
한국학자센터 영남권역센터

발표자 : 한국학자 13명, 중국학자 10명, 독일학자 2명





송담서원

학술대회 일정표

학술대회 세부시간표(안)

시 간		발 표 자
식전행사	09:30~10:00	■ 개회사 ○이수환(한국서원학회 회장) ■ 축 사 ○김문오(달성군수) ○정만조(한국서원학회 명예회장) ○초영명(肖永明)(중국 악록서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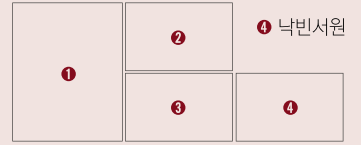
Session 1 _기획주제

○사회 : 조준호(실학박물관) ○통역 : 이신예(한국학중앙연구원)

시 간		발 표 자
발 표 1	10:00~10:30	■ 등홍파<邓洪波>(호남대학교 교수, 중국서원학회 부회장)
발 표 2	10:30~11:00	■ 조재모(경북대학교 교수)
발 표 3	11:00~11:30	■ 초영명<肖永明> (중국 호남대학교 교수, 악록서원 원장, 중국서원학회 부회장)
발 표 4	11:30~12:00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서원학회 부회장)
중 식	12:00~13:20	■ 중식
발 표 5	13:20~13:50	■ 김덕현(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6	13:50~14:20	■ 노소준<鲁小俊>(중국 무한대학교 문학원 교수)
휴 식	14:20~14:30	■ 휴식
발 표 7	14:30~15:00	■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팀장)
발 표 8	15:00~15:30	■ 궁송도<宫嵩涛>(중국 하남성 증봉시 문물국 부국장)
발 표 9	15:30~16:00	■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휴 식	16:00~16:20	■ 휴식 및 자리정돈
종합토론	16:20~18:00	■ 좌장 : 장동표(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 : 정우락(경북대학교 교수), 조영화(대구가한의대 객원교수)
폐회식	18:00	



- ① 이강서원
- ② 녹동서원
- ③ 용호서원
- ④ 낙빈서원



Session 2.3 _자유주제

○사회 : 이승우(대구가한대학교 교수) · 조명근(영남대학교 교수) ○통역 : 김명월(영남대학교)

시 간		발 표 자	
		장소 2	장소 3
발 표 1	10:00~10:30	■ 이병훈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김명자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발 표 2	10:30~11:00	■ 진력상<陈力祥> (중국 호남대학교 교수)	■ 왕승군<王胜军> (귀주대학교 중국문화서원 부교수)
발 표 3	11:00~11:30	■ Vladimir Glomb (독일-베를린 자유대학교)	■ 이우진(영남대학교 연구교수)
발 표 4	11:30~12:00	■ 임근실(단국대학교 외래교수)	■ 전배배<战蓓蓓> (중국 호남대학교 부교수)
중 식	12:00~13:20	■ 중식	
발 표 5	13:20~13:50	■ 공항운<龚抗云> (중국 호남대학교 교수)	■ 한재훈(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발 표 6	13:50~14:20	■ Martin Gehlmann (독일-베를린 자유대학교)	■ 김자운(공주대학교 외래교수)
발 표 7	14:20~14:50	■ 차금화<车金花> (중국 호남대학교 부연구원)	■ 조국권<赵国权> (중국 하남대학교 교육학원 교수)
발 표 8	14:50~15:20	■ 이재현(한국국학진흥원 연구원)	■ 김영내(경북대학교 외래교수)
휴 식	15:20~15:30	■ 휴식 및 자리 정돈	
종합토론	15:30~16:20	■ 좌장, 발표자 전원	■ 좌장, 발표자 전원
이 동	16:20	■ Session 1장으로 이동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김명진**(문학박사)

올 여름은 유난스러웠다. 가뭄, 더위, 장마, 또 더위로 이어진 나날이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은 예쁘게 다가오고 있다. 비가 그치자, 선선한 바람이 더위를 밀어 내며 피부에 시원함을 안겨준다. 들녘은 노란빛을 띠며 익어가고 있다. 이 결실을 바라보는 우리 달성사람들의 마음에 웃음이 보인다. 좋은 계절에 대구 달성군에서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가을은 마음의 지식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유의 계절이 아닐까한다. 11월 3일(금요일), '달성문화재단'에서 달성 지역민들에게 지식의 나눔 행사를 준비하였다.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이 그것이다. 내년은 고려 태조 왕건(高麗 太祖 王建)이 고려를 건국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의미를 새기는 학술 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그 첫 행사가 이곳 달성군에서 개최된다. 축제에서 백미는 전야제이다. 마치 축제의 전야제처럼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첫 행사이므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처럼 의미가 큰 행사를 달성군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대구 달성군에 한국사상 의미있는 흔적을 남겼다. 신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나라에 새겨 놓았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신라는 누적된 모순으로 인하여 말기가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889년(진성여왕 3년)을 기점으로 천년왕국은 전국이 분열되고 말았다. 한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분열의 시대가 펼쳐졌던 것이다. 혼란스러운 시대는 잠룡(潛龍, 기회를 노리는 용)들에게 기회와 시대이기도 하였다. 잠룡들은 자신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매사에 솔선수범하였다. 대표주자는 궁예와 견훤, 그리고 왕건이었다. 왕건은 원래 궁예 밑에서 활약하던 장수였는데 초심을 잃은 궁예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이때가 918년 6월이었다. 이제 세상의 주역은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국왕 견훤이었다. 태조(太祖)라 함은 나라를 처음 건국한 왕이 사망한 후에 붙여진 명칭인데, 원래 황제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왕선고개의 과거와 현재 모습

낮 하늘에 태양은 하나이고, 밤하늘에 달도 하나이듯 천하의 주인도 하나였다. 왕건과 견훤은 통일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격돌하였다. 승리하면 영웅이고, 패배하면 악인이 되는 법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통일전쟁에서 큰 획을 그은 전투가 몇 있다. 덕진포전투(전남 영암), 공산동수전투(대구 팔공산), 고창군전투(경북 안동), 운주전투(충남 홍성), 일리천전투(경북 구미)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왕건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전투가 공산동수전투였다.

927년 9월, 견훤은 신라의 수도인 금성(경주)을 기습 공격하였다. 신라는 사실상 멸망이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의(義)를 명분으로 내세운 왕건은 신라를 구원하러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이를 예상하며 기다린 견훤과 격돌하였다. 장소는 대구 공산 동수였다. 이곳은 현 팔공산 동화사 일대로 추정되는 곳이다. 결과는 왕건의 대패였다. 하지만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 전투를 역사는 공산동수전투라 이름 지었다.

이 전투의 처절한 생채기가 대구 곳곳에 지명으로 남아있다. 반야월, 안심, 나팔고개, 살내, 지묘동 등 많은 지명들이 당시의 흔적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다. 우리 달성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신평개'가 그러하다. 왕건이 패배한 후에 도망을 가다 잠시 쉬었던 고개라 해서 그리 불리어졌다고 한다. 달성군 다사읍의 왕선로, 왕선초등학교, 왕선중학교의 왕선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 전투의 주 무대는 현재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인데, 공산동은 원래 달성군 공산면이었다. 이 전투는 우리 달성군과 밀접한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동수전투의 승자는 후백제 국왕 견훤이었다. 고려를 건국하고 국력을 상승시켜 나가던 왕건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그 세가 하강하게 되었다. 하지만 왕건은 비록 패배했지만 의(義)를 쫓은 행위였으므로 얻은 것도 많았다. 그가 얻은 것은 이 지역의 민심이었다. 민의 마음을 얻은 왕건은 결국 최종 승자가 되었다. 역사는 왕건에 의해 기록되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재, 우리는 왕건의 통일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견훤은 악인인가. 신라의 멸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여러 질문을 하게 된다. 또한 그 통일전쟁의 큰 분수령이 되었던 공산동수전투와 당시 이 지역의 역사적 위상 및 사상적 동향도 궁금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대구 달성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교훈을 문화 콘텐츠화 하려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진 : 지식산업사

고려 태조 왕건 청동상

이상은 본 학술대회의 예고편이다. 이 학술대회를 위해 달성군·달성문화재단·달성군립도서관이 한국중세사학회와 머리를 맞대었다. 한국중세사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유일한 학술단체이다. 경향 각지의 고려시대, 특히 태조대 연구의 권위자들이 달성군의 명산 비슬산 품으로 모여들 예정이다. 예고편보다 본편이 더 흥미로울 것이다. 이는 당연한 예상이 되리라 여겨진다. 당일 참여한 지역민들은 연구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달성 지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추진일정 및 내용

- ▶▶ 일시 _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1:30 ~ 6:00
- ▶▶ 장소 _ 달성군립도서관 3층 강의를실
- ▶▶ 주최 _ 달성군, 한국중세사학회
- ▶▶ 주관 _ 달성문화재단, 달성군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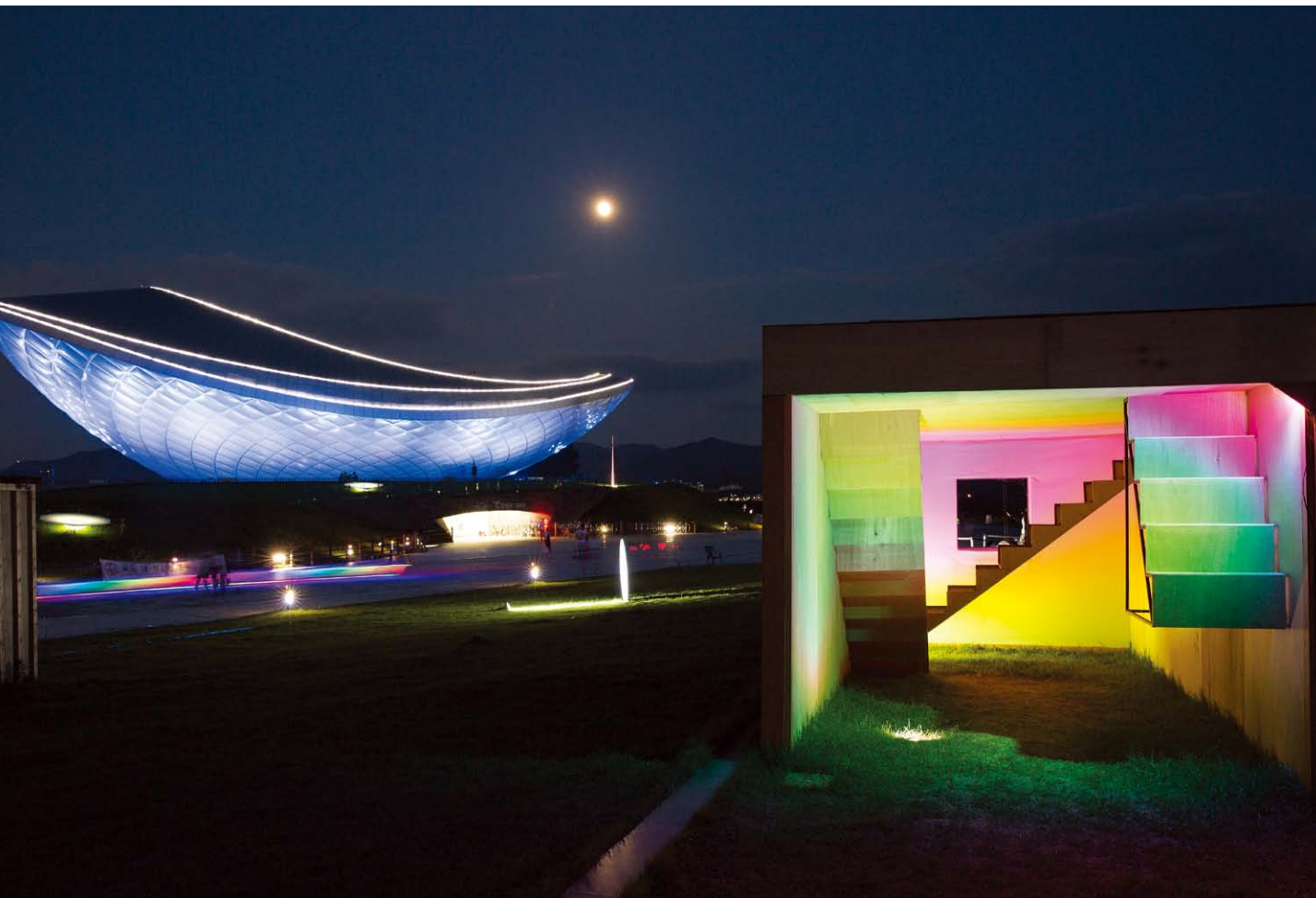
시 간	식 순	내 용
	1부 순서	▶▶ 사회 : 홍영의(국민대학교 교수)
13:30 ~ 14:00	개회식	▶▶ 개회사 : 김기섭(한국중세사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환영사 : 김채한(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 내빈소개 축사 : 김문오(달성군수)
14:00 ~ 14:30	1주제 발표	▶▶ 고려 태조 왕건과 대구, 달성의 역사적 위상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14:30 ~ 15:00	2주제 발표	▶▶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팔공산)와 신승겸의 역할 김명진(경북대학교)
15:00 ~ 15:20	휴식 · 다과	
	2부 순서	▶▶ 사회 : 최연주(동의대학교)
15:20 ~ 15:50	3주제 발표	▶▶ 고려 태조대 대구, 달성지역의 불교계 동향 한기문(경북대학교)
15:50 ~ 16:20	4주제 발표	▶▶ 고려 태조 왕건의 대구 달성군 역사문화콘텐츠화 전략 김기덕(건국대학교)
16:20 ~ 16:40	휴식 · 다과	
16:40 ~ 18:00	종합토론	▶▶ 좌장 : 김갑동(대전대학교) 1주제 토론 : 김병인(전남대학교) / 2주제 토론 : 신성재(해군사관학교) 3주제 토론 : 이병희(한국교원대학교) / 4주제 토론 : 박진관(영남일보)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강정, 미래의 기록’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가 ‘강정, 미래의 기록’이라는 타이틀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48일의 여정을 마쳤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미술제는 총 24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건축을 도입한 획기적인 시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강정의 여름을 채웠을까.

‘강정’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매년 개최되는 ‘강정대구현대미술제’는 달성군은 물론 최근 몇년간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미술제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어느 계절보다 여름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 연유에서, 뜨거운 대구의 열기를 감내하며 펼쳐지는 ‘핫(hot)한 미술제’, 그것이 바로 ‘강정대구현대미술제’이다. 확 트인 여름 강변에, 사람들이 일상의 심표를 그리는 이곳에, 자연스레 현대미술의 이야기가 수 놓인다는 것. 1970년대 이곳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과거의 작가들도 가히 상상하지 못했을 이 미술 축제가 여섯 번이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은 대구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축과의 협업

매년 ‘강정대구현대미술제’를 치를 때마다 던져지는 화두는, 바로 ‘야외’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자연스런 현대미술의 풍경화를 그려내는 것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채택된 방법이 바로 ‘건축과의 협업’이다. ‘건축+미술’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도출되는 장점이라 한다면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미술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야외라는 제약된 공간으로 인해 조각류의 작품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면 건축이 도입되면서 보다 풍부한 현대미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처음부터 최춘웅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미술제는 각각의 작품에 걸 맞는 건축구조물이 다수 도입돼, 야외전시의 색다른 묘미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틴 크리드(Martin Creed)의 작품 〈Work No. 262〉의 경우 연두색 풍선을 건축구조물에 채워 넣고 관람객의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했다. 이른바 ‘풍선 나라의 방’에 들어가서 직접 느끼고 만지는 행위를 통해, 평범한 사물로부터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낯선 순간으로 이끌었다. 또한 프랑스 작가 알랭 세샤스(Alain Sechas)의 〈Photomatou〉라는 작품은 여러 표정의 고양이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전시해 관람객이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씩 집어가게 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미술작품을 소유한다는 일종의 충만감을 선사했다.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나무를 소재로 한 영상 작품은 밖에 노출된 스크린이 아닌 터널식 구조의 건축물 안에 상영하여 안팎을 넘나들며 관객이 바라보고 싶은 위치에서 작품을 느끼게 하여 묘한 예술적 감성을 자극했다. 박여주 작가는 ‘공간’ 속에서 은근히 뿜어져 나오는 조명을 활용해 강정의 밤을 밝혔고, 하광석 작가는 어두운 암실과 같은 건축물에 들어서면 영상과 조명 그리고 오브제를 활용한 아름다운 빛으로 공간을 감싸는 작품을 선보여 관객의 즐거움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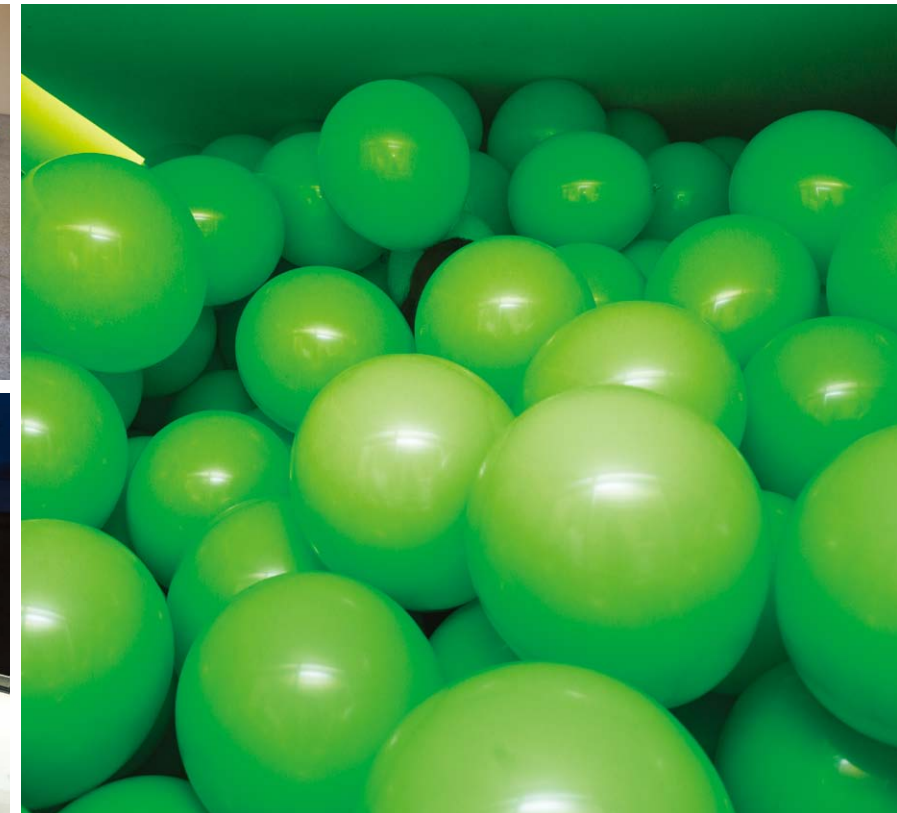


관객과 호흡하는 작품

올해 미술제의 큰 특징이라 한다면, 앞서 언급한 건축과의 협업 작품들도 그러하듯 관객과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박제성작가의 〈Philosophers〉라는 작품은 한창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으로 모바일폰으로 현장의 캡션에 새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예상치 못한 상상 속 풍경이 가상현실 세계로 초대해 장르의 다양성을 확보함은 물론 관객의 열렬한 반응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이은선 작가의 〈Dancing Tree〉는 강변의 산책로에 줄지어진 나무에 치마모양의 패브릭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가 입은 스커트’는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더하여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에게 여유와 낭만적 분위기를 품게 했다. 화레틴 오렌리 작가의 〈무좀〉은 작가의 자작시가 새겨진 벤치의자 형태의 작품으로 관객이 직접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사했다. 이뿐 아니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그늘막 밑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시음할 수 있는 구수현 작가의 〈위터바 프로젝트〉가 진행돼, 작품을 감상하며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식혀가는 여유를 제공했다.

강정과의 소통하는 미술제

‘강정대구현대미술제’는 강정이라는 역사성과 장소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미술축제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강정의 역사적 정체성 즉,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제가 가지는 도전성, 실험성 등의 의의를 함축했다고 한다면 강변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기인한 작품들도 놓치지 않았다. 구수현 작가의 〈Dangsineun Dodi Chulsiningayo〉의 경우 전국 각지의 수돗물을 수집해 이것을 활용한 수증기를 뿜는 조형물을 설치해,



‘강변’에서 연상되는 ‘물’이라는 소재로 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스토리를 풀어내었다. 이화전 작가의 〈Tranquil Garden-My Pond〉는 물고기가 그려진 일종의 수조에 물을 담아 관객이 직접 들여다보고 손을 담구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수변이라는 장소와 어울리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밖에 박기진 작가의 〈벌레 침대〉라는 작품은 야외라는 특징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이 자연스레 작품의 일부가 되는 작업으로 장소성을 활용했다. 이 밖에도 김준 작가의 작품 〈Fliesen〉은 파란색 물탱크 안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채집된 강정의 물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를 예술로 환원하여 관객의 예술 감성을 자극했다.

강정, 미래의 기록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는 일상에 녹아든 미술, 삶의 한 편에 풍경이 되는 전시를 추구했다.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올해는 강정이라는 일상의 여유를 품은 공간에 관객이 직접 참여 가능한 작품으로 한가득 펼쳐 놓았다. 동시대 미술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강정대구현대미술제’에 대한 미래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관객과 호흡하고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미술축제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한다. 올해의 미술제는 그러한 비전을 담은 디딤돌을 다지는, 말 그대로 ‘미래의 기록’으로 기억될 전시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작품과 함께 노니는 이 즐거운 미술축제를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17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돌아보기를 마무리 한다.

문화정책실 이나영

온 가족이 함께 아이조아 페스티벌

1995년 경상북도로부터 대구광역시로 이관한 달성군의 오늘은 대구의 뿌리에서 지천에 만개한 꽃으로의 이미지만큼이나 성장과 풍요로움, 젊음과 역동의 시간을 달리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의 달성군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1년부터 연간 2.4% 씩 늘어나던 인구가 2014년 이후 4.2% 증가, 그리고 2015년부터는 13.2%로 성장해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상반기가 되면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 평균 연령인 40.4세(2015년 기준) 보다 거의 두 살이나 어린 38.5세의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등 군내 산업단지 활성화로 젊은 근로자들이 대거 이주해 오고 있고 달성군내 어린이 보육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발맞추어 달성군에서는 지난 8월 17일(금)부터 19일(토)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4개국 9개의 아동극 작품을 초청해 대구 최초 국제 아동극 축제 '아이조아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3일간 총 1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호기심과 천진난만한 감성으로 어느 계절보다도 들쭉였던 아이조아 페스티벌 축제장에서는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주를 이뤘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의 개통으로 대구 도심과의 접근성을 갖춘 국립대구과학관은 오전부터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고 아이조아 페스티벌의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과학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싶은 공연들을 찾아 즐기는 모습이었다.

실내공연장과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국·내외 아동극 초청공연, 유모차를 탄 아기들을 위하여 펼쳐지는 유모차콘서트, 과학관 로비와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어린이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여줄 체험 프로그램, 동화 속 캐릭터가 준비하는 동상퍼포먼스, 신나는 물놀이장,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트럭 등이 준비되어 특히 문화예술로 감성이 쑥쑥 자라날 어린이들은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개막 첫 날인 17일 야외개막무대에는 1,500여 명의 관객들이 축제장에 모여들어 준비한 객석은 물론 과학관 광장이 꽉 차서 달성군 지역주민들이 모두 모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깨를 맞대고 서서 보는 가족들과 아빠 어깨에 목마를 타고 보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어린이 전문 공연단 '이화예술무용단'의 무용공연, '잼스틱'의 타악퍼포먼스, 그리고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주립 유소년 극장 팀의 개막작 '아기요정 쿤즈야, 아니면 숲속 오두막에서의 모험'에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한편 4개국 9작의 아동극과 실내 및 야외 버스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부터 어른들의 동심까지 모두 만족시킨 공연들이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하게 전개된 기발한 무대에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감탄소리가 더욱 크기도 했다. 신나는 리듬과 재미있는 소품들로 소통을 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빛의 그림자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등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상상력을 더하게 해 관객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와 흥겨운 몸짓으로 화답하며 축제를 함께 채워 나갔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축제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내년 아이조아 페스티벌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문화정책실 박원영



곽준(郭越) 나무



곽준(郭越) 나무는 조선시대 장군인 곽재우(郭再祐)의 유적으로, 그 나무가 자란 곳에는 곽재우의 동상이 서 있다. 곽재우는 조선의 명장으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인물이다. 이 나무는 곽재우가 장군으로 있을 때 심었다고 전해진다. 나무의 높이는 약 10m 정도이며, 둘레는 약 1.5m 정도이다. 나무의 잎은 가을에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나무의 뿌리는 매우 깊고, 나무의 줄기는 매우 굵다.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넓게 퍼져 있다. 나무의 잎들은 매우 작고, 나무의 꽃들은 매우 작다. 나무의 열매들은 매우 작고, 나무의 씨앗들은 매우 작다. 나무의 줄기는 매우 단단하고,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유연하다. 나무의 잎들은 매우 부드럽고, 나무의 꽃들은 매우 향기롭다. 나무의 열매들은 매우 달고, 나무의 씨앗들은 매우 맛있다. 나무의 줄기는 매우 아름답고,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멋지다. 나무의 잎들은 매우 화려하고, 나무의 꽃들은 매우 아름답다. 나무의 열매들은 매우 맛있고, 나무의 씨앗들은 매우 유용하다. 나무의 줄기는 매우 튼튼하고,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유연하다. 나무의 잎들은 매우 부드럽고, 나무의 꽃들은 매우 향기롭다. 나무의 열매들은 매우 달고, 나무의 씨앗들은 매우 맛있다. 나무의 줄기는 매우 아름답고,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멋지다. 나무의 잎들은 매우 화려하고, 나무의 꽃들은 매우 아름답다. 나무의 열매들은 매우 맛있고, 나무의 씨앗들은 매우 유용하다.

홍의장군 곽재우의 용맹 깃든

예연서원

禮淵書院

바다는 이순신 장군, 육지는 홍의장군이 무서웠다. 왜적이 조선에 쳐들어 왔다가 이 두 분 때문에 혼쭐이 났다. '하늘이 내린 붉은 갑옷'을 입고 백마를 달리던 용맹한 장군 곽재우(郭再祐). 홍의장군 곽재우의 발자취는 대구 인근 여러 곳에 있다. 달성 구지, 현풍, 유가는 물론 경남 창녕, 의령 등지에도 장군의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대구의 동쪽 관문인 효목동 곽재우의 호를 딴 망우당 공원에 가면 큰 칼 차고 말을 탄 곽재우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옆 망우당 기념관에는 그의 귀한 유품들을 모아 두고 있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 가테리 538 예연서원.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곽재우 장군을 모시고 있다. 눈에 광채가 번득이고 기개와 도량이 크고 성품이 밝은데다 용맹하고 호걸스러웠던 곽재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돋보였다. 게다가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매우 깊었던 곽재우는 별시문과에 2등으로 뽑혔으나 글의 내용에 왕의 뜻을 거스르는 글이 있다하여 합격이 취소됐다.

그 뒤 경남 의령 근처에 내려와 지내다가 1592년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오자 마을 앞 느티나무에 북을 매달아 치면서 "뜻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곳에 모이시오!"라며 의병을 일으켰다. 이 나라 첫 '의병'이었다.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성산리 거름강 싸움에서 이긴데 이어 의령의 관문인 솔바위나루를 건너오는 왜적으로부터 의령·삼가·합천 등을 지켜내 적의 호남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일찌감치 막았다.



전술과 용병술에 뛰어난 객재우는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적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무찔러 없앴다. 여러 장수들에게 붉은 옷을 입혀서 누가 홍의장군인지 헷갈리게 했고, 강물의 깊고 얕음이나 높고 낮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신출귀몰한 전술 전략에다 조충의 사정거리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활로 왜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객재우는 1599년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올라 “전투경험이 많은 군사들로 성을 지키게 하고 내륙에 있는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 가족과 함께 편히 살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조정에 건의했다.

그러나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선비로 살았다. 이 '평범한 선비'는 어쩌면 붉은 갑옷에다 백마를 달리며 왜적을 물리치던 그 용맹했던 장수의 모습보다 더 무서웠던 분인지도 모른다.

한편 이곳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1호 예언서원은 객재우가 세상을 떠난 다음해 1618년(광해군 10)에 그를 기리며 영남사림과 경상감영이 현풍면 솔레에 충현사를 건립했다고 한다. 그러다 숙종 원년(1674년)에 당시 현풍 현감이 규모를 확장하면서 서원을 창건했다. 이곳엔 정유재란 때 안음 현감으로 황석산성에서 왜적과 혈전을 벌이다 순절한 객준의 위패도 함께 봉안하고 있다. 1677년 예언서원이란 현액이 내려져 사액서원이 됐지만,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 5년(1868)에 폐쇄됐다. 그러다 6·25전쟁으로 완전히 소실된 것을 1977년 강당과 장판각 등을 새로 짓고, 1986년 옛 모습대로 갖추었다.

글_이현경



세천의 위대한 12차, 12채, 36가락

달성다사 12차진굿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 정기발표회]

일시 : 2017년 9월 30일(토) 오후 2시

장소 : 세천늪 근린공원



달성다사12차진굿(달성다사농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대에서 행해지던 당산제와 빗신제, 빗신제 및 마을 풍물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달성다사12차진굿은 경상도의 전형적인 모의 군사굿이 잘 표현되어 있고, 연행 전반에서 박력 있고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진법 기준으로 구성된 절차와 연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는 12차, 12채, 36가락으로 이뤄져 있다.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는 가락국 가야시대부터 동래정씨의 집성촌으로 번성·영화를 누렸으며,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는 통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또한, 경치가 뛰어나 영남팔경 중 하나로 유명했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당산제를 지내온 것으로 전해지며, 마을 창고에는 늘 악기를 보관해 대보름, 단오, 추석 명절은 물론 '머슴날'이라 부르는 백중날에도 풍물을 통해 마을의 단합과 신명을 나누었다. 특히, 음력 정월 대보름부터 2월 초하루까지는 집집마다 집돌이 풍물을 행하였고, 지신밧기를 통해 가정의 액운을 물리고 복을 기원했다.



달성다사12차진굿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안성 바우덕이축제 풍물경연대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귀중한 가치와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농악부문 최우수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기도 했다. 현재 달성다사12차진굿보존회(달성다사농악보존회)는 달성다사12차진굿의 우수성과 전통적 신명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다사 세천 강변에서 '대구정월대보름굿'을 주최하고 있다. 또한 달성다사12차진굿(달성다사농악)의 보급과 후진 양성을 위해 매주 회원 연습과 정기 강습회를 연다. 올해 정기발표회는 다사농악의 발상지인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마을굿을 준비하고 있다. 세천리에 새롭게 조성된 세천늪 근린공원에서 마을 길놀이를 시작으로 성주지신밧기와 고사굿, 마당극 공연, 달성다사12차진굿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천 땅 밟으며,
모듬굿에서 칭칭이굿까지

달성이천농악



이천농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에서 전승된 농악이다. 이천농악의 연행 과정은 모듬굿에서 시작해 마지막 칭칭이굿까지 모두 20과정이다. 연행 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경상북도의 전형적인 풍물굿으로 투박한 직타로 박아치는 쇠가락 맛이 살아 있으며, 마당 굿이라 하여 동작에 의해 마치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천리는 1520년 승정원 좌승지를 지낸 통훈대부 추계(秋溪) 추씨(秋氏) 추상의(秋尙義)의 12대손 추세(秋世)가 개척한 마을로 추계 추씨 동성촌락이다. 이 마을은 금호강이 흐르는 안쪽에 있다는 뜻에서 '이내'라고 했고, 또 강 두개가 흐른다고 해서 '이천(伊川)'이라고도 한다.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 입구에서 음력 정월 열나흘날 밤 마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주(祭主)는 2명씩 마을회의에서 뽑았다. 제물은 삶은 돼지머리를 비롯해 삼색실과 명태 등을 사용했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진행하며 삼헌과 축이 있었다. 동제가 끝나는 보름날은 마을 주민들이 음복을 하고 마을회의가 끝나면 '지신밟기'를 한다. 지신밟기는 2월까지 이어졌고, 이천리에서는 지신밟기를 하면 주로 추교봉(秋敎鳳, 1924년생)이 상쇠를 쳤다. 이와 함께 여름 '푸꾸'(뚝곳) 때와 가을 추수 후에는 날을 받아 출향인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일 동안 농악을 치며 밤낮으로 놀았다고 한다. 이천농악은 이천리의 마을굿과 금호강변에서 연행되던 판굿 등이 그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천농악이 전승될 수 있는 배경에는 예부터 이 마을에서 뛰어난 쇠꾼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 사람들이 추정하는 가장 뛰어난 쇠꾼은 추한길(秋漢吉, 학연, 1900~1950)로 꼽는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초청될 만큼 유명했고, 이천농악에서는 첫 번째 상쇠로 정해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 단위 농악의 쇠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67년 제6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 청와대에 초청되어 축하공연을 한 적도 있다. 이천농악이 조직화된 것은 1986년 의용소방대원 30여 명이 다사면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하면서부터다. 이후 1990년 12월 다사농협 정미소 지하 사무실을 임대해 '달성중앙농악단'을 창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단이 됐다. 2002년 지도교수들의 중용으로 전승지(발상지) 이천리 마을을 중심으로 '달성이천농악단'으로 개명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글_박종복

전쟁과 평화



조형물 이야기 : 우록마을

고즈넉한 산세의 평화로운 마을, 우록리의 풍경이다. 우미산 아래에 있는 소 골레 모양 마을이란 뜻의 '우록리'였던 이곳의 이름을 사슴과 벗하는 마을이라는 '우록리'로 탈바꿈시킨 이는 모하당 김충선이다. 이곳의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정착하게 했을까. 그는 항왜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조선에 투항하고 귀화한 일본인들을 일컬어 '항왜'라 한다. 그들 중 가장 높은 신분에 올랐던 사람이 김충선이다. 일본군 선봉장 '사야가'로 조선을 침략하러 온 그가 조국을 등지고 조선인 '김충선'이 되어 우록마을에 터를 잡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은 다수 국가가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이면에는 동아시아를 평정한 명나라가 만들어놓은 중화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장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욕은 조선 침략의 명분을 '정명가도'로 내세웠다. 그렇게 불이 붙은 전화는 7년이나 계속되며 조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 전쟁의 큰 테두리다. 그렇다면 그 테두리 안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전쟁은 여러 방면에서 불가역적이다. 한 개인의 소신과 의견은 전쟁과 역사의 너울 속에 아스러지게 마련이다. 그 너울의 한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전국 통일 이후 고무되었던 히데요시는 꿈꾸던 대륙정벌을 실행에 옮겼고, 이 과정에서 많은 영주와 무사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정복전쟁에 강제로 참전토록 한다. 그렇게 출정한 일본인들은 죄 없는 타국민을 명분 없이 죽여야 하는 괴로움과 본국에서 겪게 될 히데요시의 압제 등 다양한 생각의 교차 속에서 고뇌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사야가는 마침내 선택을 하게 된다. 침략 대상국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 이후의 삶이 순탄했을 리 없다. 새 조국에서는 투항의 진의를 의심받았을 것이고, 옛 조국에서는 역적이 되었을 거다. 그럼에도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은 전란의 시대 속 내몰린 한 개인의 주체성이다. 비록 남겨진 전 생애를 바쳐 새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증명해야 했지만, 침략자보다는 지키는 자가 되고자 했던 김충선의 삶이 우록마을에 잠들어 있다. 격랑의 시대를 지나온 이가 몸과 마음을 쉬었던 곳, 그곳에 가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문화정책실 박현주

현
풍
향
교

알고 보면 보이는 것들

이 시대의 향교란 이름은 알고 있지만 특별한 일 없이 방문하기 멋쩍은 공간이다. 그리고 요즘 세대에게는 향교를 방문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떡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굳이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 기왓장처럼 넓아가는 고풍스러운 공간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24시간 어느 때든 오는 사람을 거부하는 일 없는, 옛사람의 가르침이 남긴 향기로 가득한 공간이다. 우리 곁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 '현풍 향교'다.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 27호. 언제부터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601년에 현감 이영도가 구교동에 고쳐지었다가 1759년 현감 김광태가 현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326-1)로 옮겼다. 모든 향교가 그렇듯 현풍 향교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향교 공간은 앞쪽에 학문을 위한 공간을 두고 뒤쪽에 사당을 모신다는 의미의 '전학후묘(前學後廟)'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향교의 가장 안쪽에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聖殿)과 중국 및 우리나라의 역대 성인들을 모신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대성전 구역'을 이룬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던 강당인 명륜당(明倫堂)과 숙식하며 공부에 힘쓰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명륜당 구역'을 이름으로써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이런 향교의 공간은 향교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외삼문(外三門)과 향교 내부를 구분하는 내삼문(內三門)이라는 두 개의 큰 문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삼문(三門)은 좌우와 중앙의 세 개의 문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중앙의 문은 신문(神門)으로 신을 모실 때나 제사에 쓰이는 도구나 음식을 들일 때 출입할 수 있는 문이다. 모든 사람은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오게 되어있다.



이 시대의 향교

시간이 흘러 사회·문화가 변하고 유학이 힘을 잃어가는 시대지만 학문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현풍 향교의 김상화 전교와 수명의 장의로 이루어진 현풍 향교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유학으로 교감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향교의 전통 행사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성인들께 예를 올리는 분향례(焚香禮)가 있고, 음력 2월과 8월의 정해진 날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지낸다. 이 중 규모가 큰 석전대제 때는 일반인의 참여와 관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풍 향교에서 설립한 달성유림교육원에서는 평일에 서예·한문중급·한시·한문초급·다도예절·생활예절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특별강좌를 실시해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한시 백일장과 서예 공모전을 개최해 유림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긴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문화의 지킴이 향교를 산책하며 성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

글 _ 이준석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왕건, 그리고 고려시대 달성』

일 시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1:30 ~ 6:00

장 소 달성군립도서관 3층 강의실

주최 | 달성군 한국중세사학회

주관 | 달성문화재단 달성군립도서관



사진 : 지식산업사

문의 | 053. 659. 4293

전국유일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

2017. 12. 27 | 수 | 오후 7:30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최 : 달성군 每日新聞 주관 : 달성문화재단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 053)659-4285

